

“지금 여기 나를 보라”... 존재의 사유 담다

禪과 현대미술

①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

들판에 핀 노란 민들레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민들레꽃밭을 한 수행자가 걸어가고 있다. 수행자와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민들레꽃은 아무런 말이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인데 그 수행자는 무엇인가를 얻은 듯한 흐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 1950~, 독일)는 의사가 되어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된다. 하지만 그가 의대를 다니는 동안 인도, 티베트, 미얀마,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여행하며 많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육체의 병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그의 의문은 여행을 하는 동안 만나는 많은 수행자를 보면서 서서히 해법을 찾아간다.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마음에 따라서 육체의 병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마침내 의사의 가운을 벗어 던지고 예술가의 옷을 입게 된다.

예술가는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의사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병은 불안, 초조, 절망, 우울, 강박감, 상실감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이러한 감정들은 자신의 의지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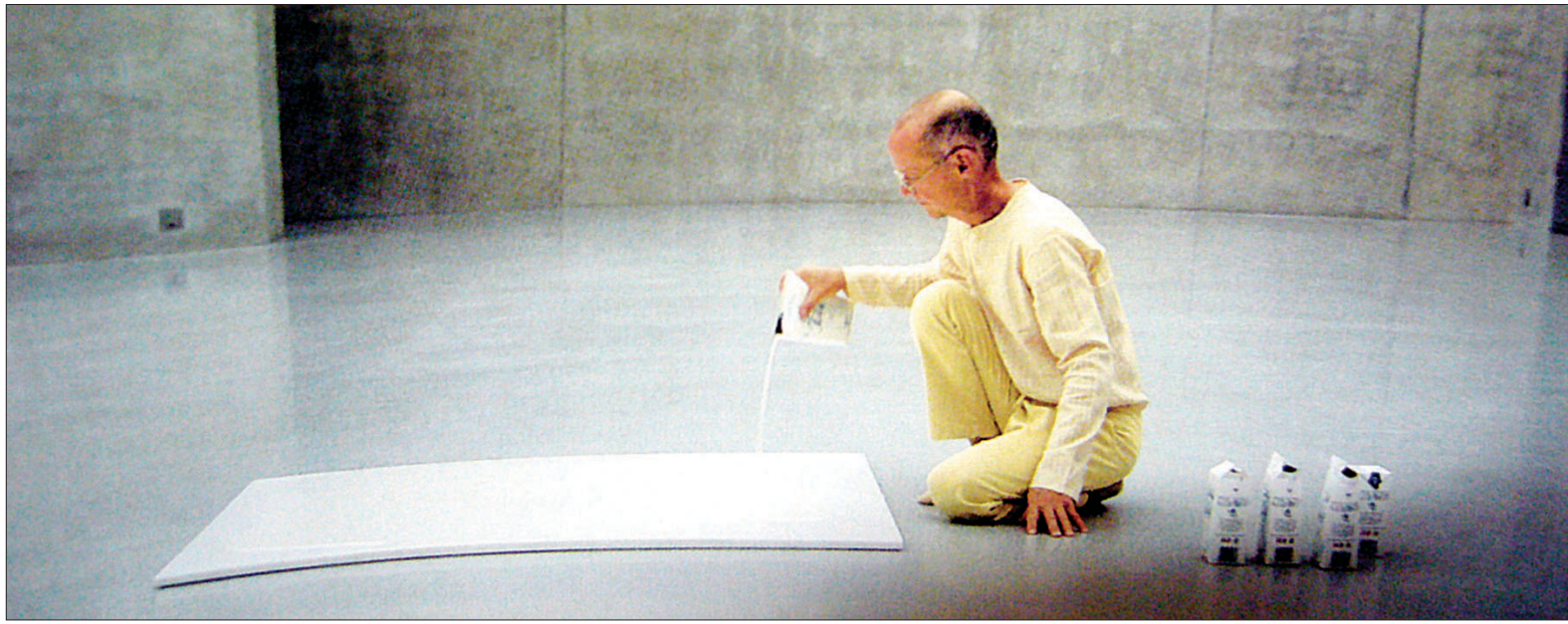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등등 각각의 취향에 따라서 그 해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여기에 볼프강 라이프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위안과 희망, 따뜻함, 사유 등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들을 찾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명상과 수행의 작가로 잘 알려진 볼프강 라이프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민들레 꽃가루를 통하여 작품을 하고 있다. 민들레꽃을 건조하여 가루로 만들어 가는 망으로 걸러내어 아주 작은 입자가 된 꽃가루들은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많은 꽃가루들이 만나면 자그마한 산을 이루기도 한다.

작품 ‘오를 수 없는 다섯 개의 산’은 꽃가루를 쌓아올려 만든 자그마한 산이다. 개미조차 오를 수 없는 이 산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 허망한 줄 모르고 늘 그 산을 오르코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 라이프는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지도 모른다. 즉, 허망한 욕망의 산이 아닌 무념무상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려는 화두처럼 보인다.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온갖 것을 성취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그는 마음의 안정과 고요, 수행자의 삶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스위스 바젤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그



‘우유물’을 작업하고 있는 볼프강의 모습. 미술사학하게 우유를 붓는 행위는 삶에 대한 관조를 의미한다.

의 꽃가루 작품을 직접 보았을 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아주 가능하게 만들어진 꽃가루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을 가져다주었으며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처럼 그 형상과 색을 떠난다는 <금강경>의 ‘이색이상분(離色離相)’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오온(색·수·상·행·식)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진여의 세계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온몸에 전율을 느낀 경험이다 그의 꽃가루 작품을 볼 때마다 새삼 느끼게 된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 필자에게 라이프의 작품은 현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게 하는 안내자와 같다.

‘우유물’의 작품은 하얀색 돌의 가장자리를 들어가게 마모한 다음 그 곳에 하얀 우유를 붓는다. 바탕과 부어지는 우유가 같은 색이므로 그 상태를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우유가 점점에 다다르면 순간 흘러넘친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인지하는 것이다. 짧은 순간이지만 찰나의 상태는 합일의 상태이다. 즉, 사물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이다. 흘러넘치는 순간 우유를 붓는 행위는 멈추어지며 다시 우유를 비우고 다시 붓기를 시작한다.

반복되는 행위를 통하여 라이프가 보여주는 것은 삶에 대한 관조이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성찰에서 그는 수행의 방식을 터득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이프의 작품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필자에게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하는 것, 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나아가서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버리고 현재의 인식상태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있게 해 준 좋은 스승님이다.

작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볼프강의 작품 ‘지구라트’. 거대한 조각 작품을 연상시키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호홉하기 힘들 정도의 약취다. 그는 후각을 통한 현재 존재의 인지를 표현하고 있다.

미친다는 것은 좋은 측면이 많다. 하지만 라이프의 작품처럼 낮설고 어려워 보이는 작품은 결국 보는 사람의 인식의 범주 내에서 해석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명상이나 수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작품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작품의 깊이를 잘 수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바로 관념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작품을 작품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는 경우이다.

즉 자신이 설정한 어떠한 틀 속으로 작품을 넣으려 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작품과 교감한다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떠한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잠재된 의식에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라이프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선과 미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추상미술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며, 또한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작가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냐 의도를 강조하지 않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유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작품을 통하여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작가의 의도는 약화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는 색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현대미술에 나타나는 다양한 작품들의 특성들이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많은 색의 특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1-2색을 사용하며 주된 색은 심리적,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특성들을 가능한 절제하기 위해서이다. 색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때문에 색의 특성을 드러내면 색의 관점

이 부각이 되어 마음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색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의 꽃가루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반복성이다. 변화하는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무유정법(無有定法)의 이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이프가 자신의 행위예술을 통하여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 정신을 집중하여 천천히 행하는 의식처럼 보인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그의 행위예술은 존재의 가치와 시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는 후각을 통한 현존재의 인지의식이다. 그가 사용하는 밀납 작품들은 가까이 가면 강한 기름 냄새가 난다. 순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며 그 곳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독일 본(Bonn)의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의 밀납 작품 ‘지구라트’를 접한 필자의 경험이다. 겉모습은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며 거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가는 순간 코를 막게 된다. 호홉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강력한 냄새는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면 사라진다.

대상에 대한 인식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그의 밀납 작품을 사진으로만 본다면 단순히 커다란 조각 작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가 의도하는 것은 조각 작품이 아니라 후각을 통한 현존재의 인지를 위한 것이다.

라이프가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인지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현재의 깨어있음을 인지시켜주는 이러한 조형어법은 수행에서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념적 틀로 세상을 보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라이프의 밀납 작품처럼 시작적으로 보여 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서 출발하며 나로 끝난다.

이상과 같이 라이프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살펴본다. 그가 수행을 통하여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가 보여주는 작품의 특성들은 순수한 영혼의 울림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진정한 자유는 인식의 전환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식이나 틀의 구속에서 벗어나 행하여지는 그의 예술 행위들은 마치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윤양호(원광대학교 신조형예술학과 교수)

병 치유코자 했던 의사 지망생
여행 중 수행자 만나 예술가로
‘예술=수행’ 화두삼아 창작활동

직접 재배한 민들레의 꽃가루를
작품에 사용... 덧없는 욕망 표현
‘관조·인지’ 메시지 통해 내면 성찰

사찰고급연등·자동승하강시설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하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 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 **가야 공단등** : 다홍, 보라 8cm

▶ **비닐만일등**

▶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 격 · 합 인 · 예 외 · 품 목

* 공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베림(다홍) 8cm

* 탕금등 : 8cm

*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